

새벽을 여는 경북·일자리가 있는 경북

Pride GyeongBuk

프라이드 경북



[통권 387호]
2011 AUTUMN

가을

천년의 이야기

주제 | 천년의 이야기- 사랑, 빛 그리고 자연



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1.8.12_10.10 [60일간]

경주엑스포공원 및 경주시 일원



www.cultureexpo.or.kr



□ 입장권 구입안내

종류	기준요금	예매권	비고	기타
보통권	성인 15,000 청소년 10,000 어린이 8,000	12,000 8,000 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만19세~64세(대학생 이상) • 청소년 만13세~18세(중·고등학생) • 어린이 만 4세~12세(유아·초등학생) 	<p>▶ 구입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매기간 : 2011. 5. 4 ~ 8. 7(96일간) - 현장판매 : 2011. 8.12 ~ 10.10(60일간) <p>▶ 구입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매처 : 농협 전국 각 지점, 티켓링크, 엑스포조직위원회 - 인터넷예매 : www.nonghyup.com www.ticketink.co.kr www.cultureexpo.or.kr - 전화예매 : (지역번호없이) 1588-7890 - 현장판매처 : 행사장 매표소에서 전산발매 <p>▶ 입장권 구입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 Tel 053-940-4400 - 티켓링크 : (지역번호없이) Tel 1588-7890 - 엑스포조직위원회 : Tel 054-740-3062
단체권	성인 12,000 청소년 8,000 어린이 6,000	10,000 7,000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이상 	
특별권 (보통권)	성인 12,000 청소년 8,000 어린이 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입장권 소지자 	
특별권 (단체권)	성인 10,000 청소년 6,000 어린이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입장권 소지 단체 - 20명 이상 	
우대권	성인 7,000 청소년 5,000 어린이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5세 이상, 장애인 4급 이하 • 장애인 1~3급의 보호자1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군경)의 보호자 1인 • 하사이하 현역군인 및 전·의경 	

10.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김천문화예술회관 사운드 오브 뮤직 (9.29~10.1) 2011 대한민국 구상미술 대표작가전 2011 대안미술 구상미술 대표작가전 포항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지원회 (9.29~10.1) 천연염색작품전 (9.30~10.2)	상주문화예술회관 뮤지컬 구룡령 (9.30~10.1) 문경사천문화회관 영화 미당을 나온 암탉 (9.29~10.2)	제11회 일면 삼국유사 문화축제 (8.7~11.24)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8.12~10.10) 제2회 경인 코스모스 페스티벌 (9.24~10.3) 제9회 영천잔디장수축제 (9.30~10.3) 제15회 봉화송이축제 (9.30~10.3)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2011 (9.30~10.9)	1 2011경주무성주역의 왜나무디리 축제 (10.1~10.2) 물진 규장총 송이축제 (10.1~10.3) 구미문화예술회관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월드미션라이어 제2회 정기연주회
2	3	4 구미문화예술회관 뮤지컬 스페셜리더 (10.4~10.18)	5 구미문화예술회관 제2회 보시나 놀았다	6	7 영주 풍기인삼축제 (10.7~10.12)	8 경주 덕과 숲잔치 (10.8~10.13) 구미문화예술회관 임선부의 날 기념 이아사랑 음악회
9	10	11	12	13 경주예술의전당 2011 아카펠라 페스티벌	14 경주예술의전당 경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5
16	17	18	19	20	21 구미문화예술회관 국악퓨전 아리랑꽃	22 청도 반시축제 (10.22~10.24) 경주예술의전당 오페라 까말레리아 루스타카나 (10.22~10.23) 구미문화예술회관 Musica da Camera 앙상블 재회 3rd 연주회
23	24 구미문화예술회관 DVD영상물 상영회 오페라 : 체카렐리 "카발레리아나와 필리아지"	25 경주예술의전당 2011 경주시합창페스티벌 구미문화예술회관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10.25~10.27)	26	27 경주예술의전당 2011 경북학생음악제 (10.27~10.29)	28 창송 사과축제 (10.28~10.30) 구미문화예술회관 라이브뮤지컬 별간모자와 늑대 (10.28~10.30) 제17회 구미음악제	29 경주예술의전당 경주클래식기타앙상블 창단연주회
	30	31				

11.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구미문화예술회관 네손기라 피아니스트 이혜아 연주회	2	3 경주예술의전당 경주교향악단 제8회 정기연주회 구미문화예술회관 박태순 피아노 독주회	4 경주예술의전당 경주크로스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구미문화예술회관 제2회 송흥고스 정기연주회	5
6 구미문화예술회관 이은이 콘서트	7	8 경주예술의전당 가을에 들는 클래식 구미문화예술회관 제11회 관악합주단 정기연주회 정오에 만나는 예술무대	9 구미문화예술회관 제11회 국악극제	10 구미문화예술회관 월드미션 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 창작무용 발리	11	12 구미문화예술회관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11.12~11.13) 2011 신라의 달밤 165리 경기대회 (11.12~11.13)
13	14 구미문화예술회관 DVD영상물상영회 뮤지콘서트 - 이승준 오케스트라	15 구미문화예술회관 구미시 새마을여성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16 구미문화예술회관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7 구미문화예술회관 수향성을 위한 음악회 창작뮤지컬 춘봄 (11.17~11.19)	18 구미문화예술회관 소년소년합창단 정기공연 (11.18~11.19)	19
20 구미문화예술회관 제22회 경북합창제	21	22	23	24	25	26
27	28	29 경주예술의전당 베토벤 심포니 9번 '합창' 구미문화예술회관 피아노의 가장 리스트의 밤	30			

CONTENTS

PRIDEGYEONGBUK

2011.AUTUMN.VOL.387

Special Theme	04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지구촌을 매료시키다!
알찬살림 부자경북	10	김관용 도지사, '국회 UN-MDGs 포럼' 특별게스트 초청
	12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이 답이다!
웃음기득 행복경북	14	농어업·농어촌 뉴비전 '생명산업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
	16	경북도,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본격 추진
밝은미래 희망경북	18	경북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사이소(www.cyso.co.kr)' 급성장 추세
	20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시·도별 물가 비교공개에서 상위권 진입
도민사랑 일류경북	22	경북관광, '2011 한국관광의 별' 전국 최다 수상
	23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인원 3,300명 돌파!
	24	이주석 행정부지사 취임과 함께 민생현장으로...
나드리, 아리오이소~	26	낭만이 있는 경북 가을로
	30	영천 '별빛나이트투어'
프라이드 News+	32	찰칵! 경북의 오늘
	37	도정단신
	41	도의회 소식
	48	경북 알리미
	52	건강상식
	53	지금 시·군에서는



2011 AUTUMN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권오승 · 발행일 | 2011년 10월 1일
-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1445-3)
TEL. 053)950-3058 FAX. 053)956-4926
-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공보관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막 45일만에

100만 관객 돌파!

역대 최대규모

국보급 명품축제...

한국문화산업

새 지평!

“국민 여러분들도 한 번 가보시라” 이명박 대통령도 극찬!

‘세계인의 문화올림픽’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8월 11일 오후 7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백결공연장에서 김항식 국무총리,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도지사,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도지사, 대구경북 기관단체장, 문화예술계, 언론계, 각국 대사 등 각계의 국내·외 귀빈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60일간의 ‘문화축제’를 시작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8월 27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 참석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찾아 주계공연 ‘플라잉(FLYing)’과 각 전시를 관람하고 김관용 도지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행사 프로그램을 극찬했다.

이 대통령은 9월 5일 ‘73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추석 연휴 때나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한 번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관람을 권유했을 정도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1998년 경주엑스포 첫 회부터 역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많은 VIP가 다녀갔지만 방문 후 공식석상에서 경주엑스포 관람을 권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이번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특수를 누렸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는 육상대회 기간 중 대구스타디움에서 엑스포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외국인 관람객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고, 또 매일 스타디움과 엑스포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해 호응을 얻었다.

세계육상대회가 열린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엑스포행사장을 찾은 외국인인 모두 1만 1천여명, 하루 평균 1천 220여명의 외국인이 엑스포를 찾았고, 이 가운데 육상대회 선수와 임원, 가족, 관계자들이 200~300명에 이르렀다.

일반관광객뿐 아니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관계관과 가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육상대회 선수단, 50개국 의신기자단 등 육상대회 주요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8월 29일에는 경주엑스포와 육상대회를 함께 관람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160여명이 전세기를 타고 오기도 했으며, 육상대회 폐막 후에도 9월 20일 중국인 2천여명 등 대규모 해외 관광객이 엑스포를 찾기도 했다.



이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두 행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었고,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한국 체험행사가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6회째를 맞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매년 9월에 열린 개막일을 육상대회에 맞춰 8월로 앞당긴 것도 성공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세계 47개국이 참가해 ‘천년의 이야기 - 사랑, 빛 그리고 자연’이라는 주제로 ▲공식행사 ▲공연 ▲영상 ▲전시 등 크게 4개 부문에서 23개 핵심콘텐츠와 100여개 단위행사를 마련하고, 특별행사로 ▲부대행사 ▲경주시가지축제 ▲연계행사 등 20여 가지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998년부터 2000, 2003, 2007년 경주에서 네 번 열렸다. 2006년에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개최해 동남아시아에 ‘문화한류’를 접화시켰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동안 축적된 콘텐츠를 다듬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엑스포행사장인 경주엑스포공원을 연중 상시 개방해 왔다. 오는 2013년에는 ‘고대문명의 요람’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7회 문화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현직 도지사 심우영, 이상희, 김관용, 김무연, 김상조 우영규(왼쪽 두 번째부터)

2011 Gyeongju World Culture Expo



한나라당 소속 인사들 경주엑스포 방문 기념촬영



IOC위원 기념촬영



경주엑스포 투어 온 세계 각국 외신기자들



김보디아 종교부장관 민 건 경주엑스포 전통건축모형을 관람



차세대리더 주재영상 베틀천 관람



경주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



주한이스라엘 대사 주재영상 관람

2011 Gyeongju World Culture Expo



국제육상경기연맹(AAF) 관계인과 가족일행 방문



세계 춤 페스티벌 - 캄보디아 고전춤

2011 Gyeongju World Culture Expo



어린이 손님 게릴라 교관선 앞에서



세계민속인형 퍼레이드



비보이와 함께 신나는 춤의 세계로



주제공연, 플라잉



신라복식의 매력에 흠뻑 빠진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참가 벨로루시선수단 일행

2011 Gyeongju World Culture Expo



경주타워 멀티미디어쇼



소울리어와 경북전통주의 만남행사



축하공연 - 탁기국립민속공연단



스트리트 퍼포먼스 - 재플린의 마술쇼



세계 춤 페스티벌 - 그리스 전통결혼식

“경북의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의 희망!”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간담회 갖고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방안 논의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김관용 도지사는 8월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 UN-MDGs 포럼'에 최원병 농협중앙회장과 함께 특별게스트로 초청받아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추진에 대한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새마을운동 추진방향과의 접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UN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개선, 환경보호 등 8가지 목표를 실천하고자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UN-MDGs,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선언하고 국가, 지자체, 기업, 언론, 학계, NGO 등과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2000년부터 시작된 MDGs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2010년 뉴욕 MDGs 서밋 회의에서 채택, 이 보고서에서 UN은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표인 빈곤퇴치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공동체 중심인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지적했고, 이를 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의 선행이 필수적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바탕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을 한국형 ODA사업의 전수모델로 정립하여 UN과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 보급하여 세계 빈곤퇴치에 기여해 왔으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 농가소득 향상이 아프리카 시범마을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신 위에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기술뿐만 아니라 유통과 농업금융에 노후가 있는 농협의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참여를 선언한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이 “현지여건에 맞는 농업기술, 농자재 지원, 품목지도, 직업훈련은 물론 유통, 금융서비스 등 농업토털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UN-MDGs 목표 조기달성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반 총장에게 전달하여 지지를 얻었다.

국회 「UN-MDGs 포럼」은 UN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1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UN의 8개 새천년개발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영, 이낙연, 이상민 공동대표를 비롯 나경원, 김을동, 안상수 의원 등 3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 김관용 도지사가 특별게스트로 초청된 것은 그동안 경북도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저개발국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면서 보건·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UN과 MDGs 관련 UN 특별자문관인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콜럼비아대 교수로부터 “경북의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의 희망”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UN-MDGs 목표달성에 적합한 모델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8월 행복나눔기업, 김천 (주)우림, 영천 진양공업(주), 포항 (주)범스틸

경상북도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모토로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전 공무원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도에서는 민선5기 일자리 22만개 창출과 투자유치 20조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일자리 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의 투톱 체제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답이다”라는 신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의지를 고취하고자 일자리창출 실적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 인증패를 수여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는 매 짝수 월 11일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방문의 날'로 정하고, 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일자리창출 성과에 대한 인증패도 전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0년 9개, 2011년 13개 총 22개 기업이다. 지난 8월에는 김천의 (주)우림, 영천의 진양공업(주), 포항의 (주)범스틸 등 3개 업체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 '8월의 행복나눔기업'으로 선정하고, 8월 12일 '우수기업 방문의 날' 행사를 가져 이주석 행정부지사가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주)우림을 방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패를 전달하고 생산현장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자리창출담당장은 포항의 (주)범스틸, 영천의 진양공업(주)을 방문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패를 전달하고 생산현장의 근로자를 격려했다.

(주)우림은 첨단 디지털 디스플레이 부품제조 전문 회사로 김천시 아포농공단지에 소재하여 현재 종업원 수 250여명으로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84년 우림기업으로 창립하여 1998년 (주)우림으로 법인 전환되었으며, 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신기술 산업과 신사업을 개발하여 우수한 기술과 제품력을 갖춘 기업으로 LG전자에 납품하는 생산품의 73%가 PDP용 전자부품일 정도로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대표이사(김갑순)를 비롯하여 임직원은 1사 1촌 자매결연(대신1리)을 통한 농촌일손돕기, 지역 농산물구매에 앞장서고, 김천 직지초등학교와 방과후 업무협약을 통해 방과 후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 환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각종 취업박람회 참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구인활동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정착을 위하여 20개실의 55명 수용 가능한 사내 기숙사를 신축,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환경, 깨끗하고 편안한 사내 식당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인센티브활동을 통해 가족처럼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하는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중요시하는 '사람중심의 기업'이라고 자랑할 만하다.

올해 신규 채용한 인원은 113명으로 자체 연구소를 통한 기술연구와 품질개선, 내수와 수출 증가 등으로 지역에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1년 8월의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주)범스틸은 '90년 범강철재를 시작으로 '96년 범스틸로 정식 법인을 등록하면서 조선부재 절단 가공 및 원자재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철강전문기업이 되었다. 2002년 새로운 공장 신축 이전과 2009년 해양플랜트제작 분야 진출 등 강계 조달에서 남포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플레이트, H-빔, 해양플랜트를 제작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선박부재 절단가공 20,455톤, 해양플랜트 5,754톤 등을 제작 주거래처인 대우조선해양 등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고용 인력은 81명이고 이 중에서 청년인력이 40여명이나 되는 젊고 활기찬 기업으로 매출액은 지난해 192억원, 올해는 2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제품은 대우조선해양(주), 성진지오텍, 삼성중공업 등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2008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등록을 시작으로 2009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모범중소기업 경영혁신 부문 수상, 대우조선해양(주) 우수협력사 선정, 2011년 모범중소기업인 국무총리표창, 삼성중공업(주)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다.

그동안 이러한 사업영역 확장 노력을 통한 일자리창출 공로로 2011년 8월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29명이고 앞으로 품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진양공업(주)은 1971년 차량부속품 판매업을 시작으로 1979년 연간압연제품을 생산하는 철강전문기업으로 출발했다. '89년 지금의 영천공장을 준공한 후 '94년 부설연구소 설립과 '96년 2공장 준공, 2008년 신공장 1차 준공에 이어 현재 신공장을 증설 중에 있기도 하다.

주요생산품으로는 연간압연 특수강 제품으로 탄소강, 합금강, 베이링강, 스프링강 등 연간 12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제품의 80%정도가 자동차부품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현재 이 기업에 고용된 인력은 193명이고 매출액은 지난해 1,600억원, 올해는 1,9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생산 제품은 (주)풍산, LS전선, 일진베어링, 한일단조공업(주) 등에 전량 납품하고 있으며, 2007년 오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9년 부품소재전문기업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등 혁신과 일자리창출에 힘써 달려왔다.

지난 3월부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입한 교대근무제로 인한 일자리창출 기여 공로로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신규 채용한 인원은 35명으로 현재도 채용은 진행 중에 있다.

국내 최고수준의 연간압연 제품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로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더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자체 설립한 부설연구소를 통한 품질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등 좋은 제품 생산력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경상북도, 농어업 새로운 아젠다는 '생명산업'

'경북 농어업의 미래 100대 선도과제' 구체적 도출



경상북도는 8월 19일 경북농업인회관 대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도의원, 농어업인, 농·수협 관계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농어업 뉴비전 생명산업 프로젝트' 기본구상을 발표, 경북 농어업·농어촌 미래상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Ageda)로 '생명산업'을 선택했다.

'생명산업 프로젝트' 기본구상은 경북에 의한 '젊은 농어업', '활기찬 농어촌' 실현이라는 비전에서 시작한다. 이는 지역 농어업의 발전상과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대한민국 농어업을 선도함은 물론 더 이상 중앙의존적 정책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 추진과제도 내 놓았다.

전략 1 농어업의 신가치 구현 : ①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②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③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④ 차세대 핵심리더 양성

전략 2 농어촌 재창조 : ⑤ 살고 싶은 공간 ⑥ 함께하고 싶은 공간 ⑦ 즐거움이 있는 공간 조성

전략 3 Made in Gyeongbuk(경북속의 세계) : ⑧ 글로벌 시장 확대 ⑨ 글로벌 리더십 제고

농어업의 새로운 가치 구현을 위해 우선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곤충, 종자, 말, 쌀, 식품산업을 5대 핵심산업으로 선정, ①고부가 생명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식량안보 나아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②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 생태환경 예측 평가 능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 에너지 활용 녹색 농어업을 확충하는 한편 이상기후 대비 농어가 경영안정 장치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기 '효율성' 보다는 '지속적 발전'에 초점을 두고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 생태적 유기농업 확산, 곡물자급율 기여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규모의 경제 극복 위한 창의적 가족농과 스마트 농업 실현, 농협 구조개편에 따른 농식품 유통고속도로 구축, 국가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조성 등 환경친화 경북형 축산 실현, 고부가 가치 신수산업 구축 등을 내용으로 ③농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령화, 탈농어촌화에 따라 ④차세대 농어업 핵심리더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후계 농어업 경영인 육성과 함께 귀농귀촌, 베이비부머, 다문화세대 등을 차세대 농어촌 발전의 핵심리더로 양성한다. 기존의 인적 경제적 관점이 아닌 지역사회를 이끌 핵심리더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도농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갈수록 퇴색되고 있는 생산 공간 기능의 농어촌을 국민의 삶터로서 재창조하기 위해 일관성이 유지된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 모형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스마일 농어촌 운동과 연계한 농어촌 활력창출 운동을 전개, ⑤살고 싶은 농어촌 공간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미래 농업모델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농업복합단지조성도 검토 중이다. 농어촌 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라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귀농귀촌, 다문화세대를 농어촌 공동화 해소원은 물론 지역 발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이 인구유입 정책으로 한계에 도달한 점을 감안 시스템을 보완·재정립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농어촌의 국제화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어촌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친화 농업 육성을 위한 시책도 개발하여 사회 구성원이 모두

⑥함께하는 농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2030년 농어촌관광인구가 국내관광의 50%에 이를 전망일 만큼, 농의소득원이 아닌 '산업'으로서의 농어촌 관광을 육성, 농어촌을 농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휴양공간으로 차별화하여 관광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⑦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으로 '농어촌 관광 365 프로젝트'를 별도로 구상, 2011년말 발표할 예정이다.

생명자원과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내 제1의 종합적 전시 교육·체험공간인 국립 농업생명미래관, 1시·군 1개 지구의 농어촌테마공원, 농어촌 경관의 잠재적 자산가치를 적극 활용한 농어촌 경관 우수마을도 발굴한다.

세계속의 경북(Made in Gyeongbuk) 구축을 위해 우선 민간주도의 해외농장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2030년까지 3만ha), 단계별, 국가별 전략을 수립, 농식품 수출 20억불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2030년 외국인 관광 100만명 시대에 맞추어 원어민교사를 축대로 하는 농어촌 관광 확산, 역사·문화, 농촌체험, 학술 등 다양한 테마형 상품 개발과 글로벌 종합테마파크 등을 조성한다.

이와 별도로 2014년에는 경상도 명칭 사용 700주년을 기념 (가칭)경상 농업인 글로벌 대추제를 개최, 농도 경북의 자존감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⑧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식량위기, 빈곤퇴치, 기후변화 등에 있어 국제적 공조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⑨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위해서 경북형 국제협력 선도모델 구축,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 감각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새마을 정신, 화랑정신 등 경북혼을 글로벌 정신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북도는 江·山·海 등 최고의 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 시대에 이어 앞으로 다가올 생명자원을 자본으로 한 바이오 경제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만큼 '생명산업 프로젝트'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11일 '경북 농어업의 미래 100대 선도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 대형프로젝트 과제로 중앙부처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문화재 지정 전통한옥

고택 종택의 40%가 경북에...

경북에서 **고품격 한옥**을 체험한다!

경상북도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첫 사업으로 고택이 많은 경주시·안동시·영주시·청송군 등 4개 시·군 10개 고택·종택에 13억원을 지원, 전통생활용품과 실내장식 소품을 설치하고 '스토리가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차원 높은 체험관광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고택·종택은 ▲ 경주시 향단·독락당 ▲ 안동시 군자마을 후조당·수애당·치암고택·지례예술촌·농암종택 ▲ 영주시 괴현고택·박인숙고택 ▲ 청송군 송소고택 등이다.

전국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선정기준은 150년 이상 된 국가나 시·도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 종손·종부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증가로서 고택 고유의 음식 등 가사문화 체험이 가

능한 고택, 주인의 거처와 별도로 사랑채, 별당 등 독립건물을 갖추고 있는 고택, 고택 소유자가 고품격 한옥체험업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고 재산권 분쟁 등이 없는 고택 등이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경상북도는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한옥인 고택·종택이 전국의 40%인 296개로 최다 보유지역이며, 23개 한옥집단마을에 1,431호의 전통한옥을 자랑하고 있다.

또 전통한옥인 고택·종택을 활용한 내·외국인 숙박체험 확대를 위해 2004년부터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14개 한옥 개·보수 사업에 13억 5천만원, 14개 체험프로그램 사업에 2억7천만원, 3개 한옥집단마을에 13억3천만원 등 총 43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옥숙박체험 내·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현재 4만 7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지난해에 비해 3만9천여 명, 20% 정도 증가하였다.

앞으로 도에서는 고택 명품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통합 웹사이트 구축, 공동 브랜드 개발 및 각종 홍보물 제작과 팸투어 행사 등을 진행하고, 고택 운영자의 고객서비스 함양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증가문화의 세계적 브랜드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생산자가 직접 팔아 소비자가 믿고 사는

직거래 장터

입점농가협의회에 관한 부여 등 지속적인 지원 계획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사이소(www.cyso.co.kr)'의 매출액이 7월말 현재 12억3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하고, 회원수는 4만6천명 수준으로 6%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이소' 입점농가 측에서는 인터넷 판매와 전화주문 판매까지 합친 사이소의 직·간접 판매효과는 82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혀 인터넷 쇼핑몰 '사이소'가 경북지역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유통시키는 '판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소'는 "사세요"의 경상도식 표현으로 지난 2007년 경상북도에서 전자상거래 확대 등 농·특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인터넷 쇼핑몰. 생산자가 직접 농·특산물을 올리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사이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우선 지난 2009년 3월에 입점농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입점농가 협의회'를 구성, 판매농가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입점농가 스스로가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반품비율이 거의 없을 정도로 품질관리가 잘 되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또 2010년 10월 택배비 절감을 위한 경북도와 CJ GLS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입점농가 및 소비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운송장 자동발매, 변질·파손시 보상제도 확립 등으로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 향상을 도모했다.

더불어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CI를 제작하여 이미지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사이소 입점농가를 체험토록 하여 농가와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도에서는 '사이소'를 홍보하기 위해 YTN, 케이블TV, 신문, 잡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KTX, 지하철 광고와 서울 한마당 장터, 아줌마 축제 등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On-Off Line을 활용한 토털 마케팅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판매하는 농·특산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회원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매출액 증대로 이어진 것이다.

도에서는 '사이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을 '사이소' 본격 발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거래물량 증대에 맞춰 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작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그리고 입점농가협의회가 '사이소' 운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직격 농가 퇴직 조치 권한 등을 부여

하고, 대구모 거래처 확보, 규모화 된 입점농가 유입, 효율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사이소'의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On-Off Line라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창원 대동백화점, 부산 신세계백화점, 칠곡 홈플러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장, 서울 농수특산물 한마당장터, 고양국제특산품페스티벌, 대구 아줌마축제 등에 참가하여 '사이소'의 홍보행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그동안 사이소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 농가와 우리도가 하나가 되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며, "사이소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로 성장시켜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시·도별 물가 비교공개에서 상위권 진입

민·관 합동 '시장친화적인 물가잡기' 변화로 높이 평가



경상북도의 물가안정대책 추진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25일 행정안전부 발표 '전국 물가 비교·공개' 결과, 돼지고기, 삼겹살은 전국에서 각각 두 번째, 네 번째로 낮게 조사되었고, 그 외 모든 품목에서도 경북도는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물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가잡기 올인(All-in) 대책'을 수립, 하반기 '물가 4% 초반'을 목표로 물가증점관리품목 62종을 선정하여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그동안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전국 물가 비교·공개는 지난 7월 20일 대통령의 '물가안정 특별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8월 25일 '행정안전부 시·도별 물가 비교공개'를 시작으로 매월 25일 전국 물가 비교표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물가 비교표의 평가품목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10개 품목으로, 공공요금(2종: 시내버스, 지하철), 외식비(6종: 삼겹살, 돼지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채소류(2종: 배추, 무)로 구성된다.

그동안 도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7월 19일 도지사 주재 물가 비상대책회의 개최, 하반기 도정 최우선으로 '물가잡기'로 선포하고, 7월 25일 도지사 주재 '민관합동 물가안정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농·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가스공사, 상인연합회, 음식점중앙회 등 20개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가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최

초 9개반 36명으로 구성된 '물가잡기 기동대'를 결성하여 '유통구조 점검·개선, 부당가격인상·원산지 표기 단속, 외식비 지도·점검'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물가잡기 T/F팀'을 구성·운영하고, 7월 29일 부지사 주재 제1차 물가비상대책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물가비상대책회의 개최와 일일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물가잡기 품목별 실·국장 책임관리제, 매월 물가관리품목 비교·평가를 통한 시·군별 결과를 평가, 도지사·부지사가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서민생활안정 해답찾기 투어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특히, 8월 9일에는 '경상북도 물가잡기 올인(All-in) 대책'을 발표, 하반기 '물가 4% 초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물가증점관리품목 62종에 대한 물가안정대책 강력추진과 버스료,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기조 유지 및 인상요인 제거, 외식비 안정,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다중이용업소 요금관리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행락철 및 추석 물가안정 대책 추진, 쌀,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 공동주택 관리비 안정화 방안 등을 강력히 추진했다.

또, 7월 29일 한국음식업 도지회의 외식업소 가격 자율인하 결의를 필두로, 8월 1일 구미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물가안정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당일 전국 최초로 '돼지고기' 등 4개 품목의 가격 자율인하'를 결정했다.



이어 8월 12일 경주 성동시장 상인회에서는 '물가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쇠고기 등 4개 품목의 가격 자율인하'를 결정했고, 8월 17일 경주 중앙시장 상인회에서는 쇠고기 국거리, 등심, 안심 등 3개 품목에 자율적 가격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 외에도 8월 24일 영양시장 상인회에서는 돼지고기, 국수, 비빔밥 등 4개 품목에 대해 가격 자율인하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움직임은 도내 전체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내 버스업체들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8월 13일부터 대구-포항 간 시외버스 요금을 최대 11.3% 인하하고, 영덕과 울진방향 노선에도 요금을 인하하여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가격 자율인하는 과거 관 주도의 '억누르기식 물가잡기'에서 민·관 합동의 '시장친화적인 물가잡기'로의 변화를 경북이 선도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김관용 도지사는 "물가안정이 서민생활의 최우선 시급사안인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소기의 성과는 도민이 합심하여 이룬 것으로, 향후 서민생활이 나아질 때까지 물가잡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 한국관광의 별' 5개 부문 수상으로 전국 최다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1 한국관광의 별' 최종심사에서 총 12개 시상부문 중 5개 부문을 수상, 전국 최다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내역을 보면 생태관광자원 부문에 '영주 소백산자락길', 문화관광시설 부문에 '안동하회마을', 문화·관광 홈페이지 부문에 '경주시 관광홈페이지', 체험형 숙박시설 부문에 '청송 송소고택', 관광프런티어 부문에 '경주 신라문화원' 등이며, 7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을 수여받아 한국관광을 빛낸 '별 중의 별' 임을 전국적으로 인증 받았다.

'2011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창의적·혁신적인 발상으로 관광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2010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내 관광분야 최고의 상이다.

2011년 수상자는 '한국관광의 별'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추천받은 12개 부문, 총 10,307건의 후보자 중에서 1차 전문가 심사에서 부문별 10배수를 확정하여, 2차 한달간의 국민 온라인 투표(60% 적용), 3차 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40% 적용)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도에서는 이번 '한국관광의 별' 수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함으로써 전국적인 홍보효과로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관광의 별 수상내역>

선정내역 수상자(수상부문)	공적내용
영주 소백산 자락길 영주시청(생태관광자원)	· 국립공원을백산 둘레를 한 바퀴 걷는 12구간(열두지리), 총 160km를 잇는 생태 중심의 산자락길 · 길들이 독특한 경관과 별칭을 갖고 있음
안동 하회마을 안동시청(문화관광시설)	· 풍신류씨가 600여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로 정자, 서원, 종택 등 다수의 문화재 보유 · 안동마을과 함께 2010년 세계문화유산 등록
경주시 관광홈페이지 경주시청(문화관광홈페이지)	· 경주시의 여행지, 축제, 특산물, 음식,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여행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객의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개선시스템 구축
청송 송소고택 심재오(체험형숙박시설)	· 송사(松窩) 심호택(沈號澤)이 지은 저택으로, 조선 후기 상류층 주택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음 · 우리나라 대표적 민속민집으로 현존하는 국내 99간 전통 한옥 중에서도 규모나 보존상태가 가장 뛰어나 연중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음
경주 신라문화원 원장 진병길(관광프런티어)	· 문화와 관광의 만남을 '신라 달빛기행', '추억의 경주수확여행' 등 감성적인 신개념 휴머니티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주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

경북도 출산장려정책 현장에서 실천한다

의료취약지역 거주 임산부들에게 기본적인 산전관리서비스 제공

경북도에서 농어촌 임산부들의 산전관리 의료서비스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사업이 7월 21일 의성군 보건소에서 임산부 진료 3,300회를 기록, 농어촌지역 임산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도내 산부인과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 8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13가지의 기본적인 산전관리서비스를 제공, 먼거리까지 가서 진료 받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시간낭비를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하는 사업으로 2009년 10월 첫 진료를 시작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 안동의료원과 협약 및 위탁을 통해 임산부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버스에 진료실과 X선 흉부촬영기,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기 등 최신의료장비를 갖추고, 산부인과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5명을 '이동 산부인과팀'으로 구성, 주 2~3차례에 걸쳐 이동진료를 하고 있다.

지난 해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 결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6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일반가정(4.71점)에 비해 다문화 가정의 만족도가 4.8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시 출산을 할 경우에도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았다는 의견이 100%를 나타냈고, 가족 중 임산부가 있다면 적극 권유하겠다는 의견도 99.3%로 나타나 출산 전까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 도비 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3,231명이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생활밀착형 · 현장행정 위해 민생현장 자주 찾을 것”

사람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상북도 만들기 위해 일조

제30대 이주석 행정부지사가 7월 15일자로 취임했다. 이주석 신임 행정부지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1983년 제27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대구시 기획관리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행정안전부 민방위기획과장 · 지역경제과장 · 재정조정과장 등 오랜 기간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포용력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누구보다도 지역사정에 밝은 신임 행정부지사는 “일자리가 있는 경북,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유치 조성과 신성장 녹색산업, 권역별 성장엔진 구축 등 균형발전에 힘쓰면서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이 어우러진 융도 경북으로 도약하는데 헌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부임 첫날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휴일을 반납한 채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34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청도지역을 방문하여 가옥, 농경지, 가축 등 사유시설 피해에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자들

에게 당부했다. 특히,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7월 취임 이후 경주 중앙시장, 7월 30일 영주시 골목시장, 8월 6일 김천혁신도시 건설현장 및 김천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김천 황금시장, 4대강 살리기 구간인 구미보 현장, 8월 13일 포항 북부시장, 8월 27일 경산 공설시장 등을 방문, 민생현장을 강행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지역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경북도의 '물가잡기 올인(ALL-IN)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별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민생활물가를 직접 체험하고 도민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정추진을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생활밀착형 행정, 현장행정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자주 찾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인의 스피드축제 F1절주!!



FORMULA 1™ KOREAN GRAND PRIX_YEONGAM 2011.10.14~16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등급	좌석명	티켓가격 (원/좌석/인원)		
		천일관(10/14~16)	일요일(10/16)	토요일(10/15)
R	메안그랜드스탠드	890,000	720,000	460,000
S	그랜드스탠드 A	690,000	540,000	370,000
A	그랜드스탠드 C/D	510,000	410,000	260,000
B	그랜드스탠드 B/E/F/G/H/L/M	380,000	280,000	170,000
C	그랜드스탠드 I/J	180,000	145,000	87,000

* 6월말(20%), 8월말(10%)까지 조기구매 할인을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 50% 상시 할인



contents

- #1 Tracking (11월 11일~11월 11일)
- #2 World Heritage (11월 11일~11월 11일)
- #3 Festival (11월 11일~11월 11일)
- #4 Literature (11월 11일~11월 11일)
- #5 Movie (11월 11일~11월 11일)
- #6 Sports (11월 11일~11월 11일)
- #7 Old House (11월 11일~11월 11일)
- #8 Temple stay (11월 11일~11월 11일)



#4 Culture (문화의 향연)

문화의 향연은 가을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현대의 문명을 체험하세요.

- 문화유산**
 - 경주 첨성대: 천 년의 역사를 담은 천문대.
 - 안동 하회마을: 조선시대 문인마을의 정취.
 - 고령 고령대: 신라시대 불교의 거장.
- 문화행사**
 - 안동탈춤: 흥겨운 춤과 노래의 향연.
 - 고령탈춤: 신라시대 불교의 거장.
- 문화시설**
 - 안동문화예술회관: 다양한 공연과 전시.
 - 고령문화예술회관: 신라시대 불교의 거장.

#5 Movie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화를 감상하세요.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화.
 -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화.
 -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화.
 -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6 Sports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스포츠를 즐기세요.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스포츠.
 -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스포츠.
 -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스포츠.
 -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7 Old House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옛집을 구경하세요.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옛집.
 -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옛집.
 -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옛집.
 -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8 Temple stay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절에서 묵으세요.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절.
 -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절.
 -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절.
 -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다.

청년의 이야기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세요.

2011. 8. 12. 10. 10 (토요일)

경주엑스포공원 및 경주시 일원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정취
- 가을의 정취



Star Night Tour

식을 익혀먹는 방식으로 별빛마을에서 수확한 감자와 고구마, 옥수수, 계란을 밤하늘의 초롱한 별을 보며 먹는 맛이란 어떤 것일까.

별빛여행은 밤 10시쯤 모든 일정을 마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면 '별빛마을' 민박을 이용해도 좋다. 또 '별빛마을'에는 보현산 깨끗한 물로 '미나리'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미나리로 만든 국수는 마을의 특산물이라 한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별빛나이트투어'는 매회 160명(단체 80, 개별 80)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성인 1만5천원, 초·중·고 1만원, 유치부 이하 5천원이다. 참가신청은 개별신청의 경우 영천시청 문화관광홈페이지(<http://tour.yc.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단체는 전국의 여행사에서 1회당 80명의 단체손님을 모객하여 참가하게 된다.

밤하늘 별구경 하러 떠나보자!



전국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인다는 보현산 '별빛나이트투어' 밤하늘 별구경 하러 떠나보자!

전국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인다는 보현산, 그 보현산을 품고 있는 '별의 도시' 영천시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별빛나이트투어'를 마련, 오는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별빛여행을 떠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8m 망원경이 설치되어 천문과학 연구의 산실인 '보현산천문대' 입구격인 보현산 아래마을,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별빛마을'이 별빛투어의 주무대이다.

여행은 '와인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와인학교에서 직접 '와인 만들기'를 체험하고, 와인저장고를 둘러볼 수 있다. 그리고는 보현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영천시 화북면에서 100년이 넘는 경북유일의 현존하는 한옥교회로 '기독교 사적'으로 지정된 '자전교회'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옥간정' 등 영천시의 문화유적을 돌아보고, 1500년대 제방 보호와 홍수 방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숲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리장림'도 구경한다.

그 후 '별빛투어' 주무대인 '보현산천문과학관'으로 이동, 청정한 보현산의 자연생태와 별빛마을 벽화 등을 탐방할 수 있는 보현산 하늘길 체험과, 저녁에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며 별자리 여행 및 강좌가 진행되고, 작은 음악회와 가족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가 이어져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국립 천문연구원인 '보현산천문대'는 1년에 한 번, 매년 봄 열리는 '영천별빛축제' 기간에만 개방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8m 망원경을 직접 체험할 수 없지만 '별빛마을'에 위치한 '보현산 천문과학관'이 보유한 영남지역 최고의 800mm 광학망원경으로 별을 관찰 할 수 있다. 또 '보현산 천문과학관'에서 진행되는 '5D 영상물'은 입체영상과 음향에 맞추어 좌석이 전후좌우로 돌아가는 등 마치 직접 우주를 여행하는 것처럼 온몸으로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삼국구이' 체험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불을 지퍼 돌을 뜨겁게 달군 후 물을 부어 그 증기로 음



**김관용 도지사, KBS1 '체험 삶의 현장' 출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김치 만들기 직접 체험**

김관용 도지사가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담그는 하루 일꾼으로 변신했다.

김 지사는 9월 17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된 KBS1 '체험 삶의 현장' 방송을 위해 지난 9월 2일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에 있는 서안동농협 풍산김치 공장을 찾아 가수 태진아씨와 함께 김치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김 지사는 무려 40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열무를 수확하는 작업부터 배추세척, 손질, 양념하기, 김치포장하기 및 하역작업 등 김치를 만들고 판매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했으며, 아울러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소재 장애인재활시설인 안동재활원을 방문해서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북도, 내년도 국가지원예산 적극 지원 요청
국회 정갑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운석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는 정부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국회로 넘어가기 전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 6일 영주시청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윤 위원장과 지역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장운석(영주)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당면 현안사항과 2012년도 국가지원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장운석 국회의원은 “경북도의 현안들이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북도, 일본 이비덴(주)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에 2,000억원 투자, 국내 최초 인조흑연 생산**

경상북도는 9월 1일 포항시청에서 공원식 정부부지사, 박승호 포항시장, 다케나가 히로키 이비덴주식회사 사장과 3자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일본 이비덴사는 그래파이트분야의 고도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에 150억엔(한화 약 2,000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인조흑연을 생산, 연차적으로 증산하여 연간 800억원에 달하는 인조흑연의 수입 대체효과와 함께 태양전지, 반도체 등 관련 부품의 핵심기술 이전 효과도 기대된다.

**경상북도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 전환 공동협력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업무협약(MOU)' 체결**

경상북도는 8월 29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내년 12월 31일 디지털 방송 전면 실시를 앞두고 경북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고, 도내 취약계층이 방송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착공, '경북드림밸리' 조성 탄력
혁신도시 내 국도 지하화사업비 515억 등 국비지원 건의**

경상북도는 8월 25일 김천시에서 조성 중인 혁신도시 '경북드림밸리'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황식 국무총리, 이철우 국회의원, 박보생 김천시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사장을 비롯한 13개 이전기관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으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사옥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북드림밸리는 부지 조성 전체 공정률 81%로 전국 최고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진입로 확장공사도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또 현재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을 마쳤고, 청사 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중 대부분의 기관들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경북드림밸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세계화를 이끈다!
경상북도문화재위원, 5개 분과 총 111명 위촉

경상북도는 8월 24일 도청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이주석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13년 8월 22일까지 2년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문화재위원 55명과 전문위원 56명을 새롭게 선정, 위촉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는 역사·건축·고고학·미술·민속·복식 등 총 22개 분야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 걸쳐 유능한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여성전문가 위촉율도 35%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경북도 ↔ K-water 경북지역본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자녀 매년 30명 선발 엄마나라 방문기회 제공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엄마나라 방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3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이성우 K-water 경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와 K-water 경북지역본부간 다문화가족자녀 엄마나라 방문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지역 다문화가족 학생 30명(내년부터 매년 40명)을 선발하여 엄마나라 방문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소요비용은 K-water 경북지역본부에서 올해 4천5백만원 지원하고, 향후 매년 5천만원 이상을 경북도에 지원키로 했으며, 경북도에서는 이에 필요한 행정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경북도, 전남·북지역 수해복구 발 벗고 나섰다
영호남 친선을 위한 자원봉사단 지원



경북도민들이 호남지역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에서는 경상북도 안전생활실천연합회 60명, 자원봉사자 75여명이 참여한 '영호남 친선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꾸려 지난 8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몰아닥친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전남·북 지역에서 8월 18일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영호남 친선을 위한 자원봉사단'은 8월 18일 오전 경북도청 앞마당에 모여 결단식을 갖고 출발하여 전남 평양시 진상면과 전북 정읍시 산외면 주택가 침수지역에서 토사·비닐 제거, 집기·건물 내부 청소, 물품 정리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

경상북도 - 경북지방우정청,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우편요금할인
다문화가족이 고국에 보내는 국제특송 우편물, 11% 감면

경상북도와 경북지방우정청은 8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우편요금 할인 업무협약(MOU)'을 체결, 경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고국에 국제특송 우편물을 보낼 때 11% 요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 물량에 따라 매년 할인율을 조정하게 되고, 연간 기준 월 1천건 이상 되면 최대 21%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대상은 다문화가족이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관리기관 확인증, 기타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종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한국해' 표기 18C 아시아지도 공개
'한국해' 표기 입증에 중요한 자료, 계명대에서 경북도에 알려와



경상북도가 계명대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영국 고지도 사본 1점을 공개했다. 이 지도는 1748년 경 영국의 지명한 출판업자이자, 지도제작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토마스 제프리스(Thomas Jefferys; 1719~1771)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로, 동해를 'SEA OF COREA'로 표기하고 있다.

내년 5월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우리 영해인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해를 'SEA OF COREA'로 표기하고 있어 당시 서양인들의 한반도 지역의 명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독도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주민숙소' 준공
독도 영유권 강화 위한 국기계양식도 거행

경상북도는 8월 5일 김관용 도지사, 최경환(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 국회의원, 김진영 울릉군수 권한대행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에서 '독도주민숙소 준공식'을 가졌다.

독도주민숙소는 독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긴급 대피 등 편의제공과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증축을 추진, 기존의 어민숙소(2층, 118.9㎡)를 건물 연면적 373.14㎡에 4층 규모로 증·개축, 1층은 창고와 발전실, 2층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임시사무실, 3층은 독도 주민인 김성도씨 부부가 한 칸을 사용하고 다른 두 칸은 독도연구나 학술조사 등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예정이고, 4층은 해수 담수화 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북도,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지원 추가 MOU 체결
경일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양대 등 3개 대학

경상북도는 7월 22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 김영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지원을 위해 추가로 도내 3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2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해 대학 진학 꿈을 쉽게 실현 시켜주기 위해 도내 15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 이행내용은 경북도에서 결혼이민여성 중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학비를 매년 100만원 지원하고, 대학 측에서는 전 학년 학비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2011년도 상반기 신성장 기업 시상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 7개 업체 선정 표창**

경상북도는 7월 13일 도지사 집견실에서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체를 발굴 시상하는 2011년도 상반기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에 (주)윌테크, (주)우진크린텍, 플루오르테크(주), (주)상산산업, (주)에나인더스트리, (주)라크인더스트리, 원풍물산(주) 등 7개 기업을 선정하여 표창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 선정은 기술혁신적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정 표창하는 것으로 지난 해까지 28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기업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 우대 등 경북도가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에 우대를 받게 된다.

**경북도, 한국파워트레인(주) 투자유치 MOU 체결
성주일반산업단지, 자동차부품생산기업 3,200억 유치**

경상북도는 7월 12일 성주군청 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향곤 성주군수, 주인식 한국파워트레인(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파워트레인(주)의 성주일반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2013년까지 총 3,200억원을 투자하여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64,443㎡ 부지에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한국파워트레인(주)는 연간매출 2,253억원의 중견기업으로 주생산품인 Torue converter 등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1차 밴드 회사로서 철곡군 왜관읍 등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 외국인투자 사상최대 1조3천억원 MOU 체결
도레이첨단소재(주) 탄소섬유공장 기공식과 함께 가저**

경상북도는 6월 28일 김관용 도지사, 김정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 남유진 구미시장, 일본 도레이사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 도레이첨단소재(주) 이영관 사장, 지역 국회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구미 4공단 도레이첨단소재(주) 탄소섬유공장 기공식 현장에서 일본 도레이사와 도내 외국인투자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천억 투자 MOU를 체결했다.

이날 대규모 투자MOU는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일본 도레이사, 도레이첨단소재(주) 5자간에 체결하였으며, 현재 조성 중인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내 76만㎡ 부지에 향후 10년간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섬유원료와 IT관련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2011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경상북도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대구, 경주 일원에서 세계 36개국에서 65명의 해외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관람하고, 지역 중소기업체와 수출상담을 가졌으며, 도에서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해외인턴십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8월 30일 서울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전국 古家の 45%가 경북도에 소재하고 북부지역의 유교문화, 고가, 종가음식, 문화체험 등에서 착안하여 '고가(古家)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대표 브랜드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참신한 사업 아이템으로 응모, 사회적기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출산장려 경진대회,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 주최 2011년 '제2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 3개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8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전국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2010년 제1회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광을 차지했다. 또한 기초단체부문에서 영주시가, 기업체 부문에서 노벨리스코리아(주) 영주공장이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3회 경상북도 쌀전업농대회 열려

경상북도는 제3회 경상북도 쌀전업농대회를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이주석 행정부지사와 황상조 도의회 부의장, 정희수 국회의원,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장, 쌀전업농 회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맛있는 우리 쌀, 힘 솟는 경북 쌀'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강변체육공원에서 개최, 쌀전업농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쌀 3톤(300포/10kg)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 쌀기증식과, 체육·전시홍보 행사 등을 다채롭게 진행했다.

아시아 습지 전문가, 경상북도에 모였다!



경상북도는 상주 공검지의 국가습지 지정을 기념하고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문경관광호텔과 상주 공검지에서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및 부산대학교와 공동으로 '국제 논습지 심포지움 및 람사르협약 결의문 작성 전문가 회의'를 개최, 2012년 5월에 열리는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회의에 제출할 논습지 관련 결의문 작성을 위한 회의와 논습지 보존 선언문을 작성하여 경상북도가 논습지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경북도립대학, 필리핀 Magsaysay기술대학과 MOU 체결



경북도립대학은 지난 8월 4일 필리핀 잠발레스주 막사이사이기술대학(Ramon Magsaysay Technological University, 총장 Feliciano S. Rosete)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연구인력 및 학생 상호교류, 공동 학술연구 및 연구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기술정보 교류 등 향후 두 대학간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협약식 개최

경상북도는 8월 18일 은행연합회 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테스트 베드'를 포함과 구미에 구축하기로 정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신재생 에너지 테스트 베드는 정부에서 3년간 국비 4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도에서는 포항공대 주관의 연료전지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주관의 태양광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개소

경상북도는 지역청소년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건전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북 안동시 신안동에 370㎡ 규모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8월 12일 이주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급 학교장, 청소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 안동에서 열려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인술 광복회도 지부장, 김광립 국회의원, 이상호 도의회의장, 이영우 도교육장, 김정석 도경찰청장, 권영세 안동시장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생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학교 '행복그루터기 캠프' 개최

경상북도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도내 저소득 모범 한부모 가족 120세대 300명을 선정해 한부모 가족 자립학교 '행복그루터기 캠프'를 개최, 자립학교 수료자에게는 세대당 200만원씩 총 2억 4천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했다.

사이버독도사관학교 '독도캠프' 실시

경상북도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독도(동해)와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양성을 목적으로 2009년 3월에 개설·공동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독도사관학교(<http://dokdo.prkorea.com>)'에서 우수 사관생도 70명을 선발하여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울릉도·독도 현지에서 독도 관련 유적지 답사와 독도박물관 견학, '독도평화호'를 이용하여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독도캠프'를 실시했다.

제1회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8월 10일 문경시 실내체육관에서 사단법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관으로 공원식 정부부지사, 친환경농업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대회'를 개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갑 친환경농업인의 역할과 의무'라는 주제로 박수희 메니코리아 대표의 특별강연 및 경북친환경농업인의 화합 한마당 잔치를 진행했다.

경북도, 저소득층 자녀 106명에게 장학금 지급

경상북도는 올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층 자녀 106명을 선발, 8월 1일부터 경북도 청·시·군 향우회 대표가 장학생들을 직접 방문하여 1인당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장학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1억원의 이자수익금으로 1992년부터 매년 지급해오고 있다.

제11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제11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가 8월 4일 의성군 종합운동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1차관,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고, 8월 6일까지 2박3일간 '깨어라! 펼쳐라! 솟아라! 경북농업경영인이여!'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체험행사, 문화·체육행사, 한농연 가족의 밤 행사 등을 다채롭게 진행했다.

2011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 전국최고

경상북도는 지난 7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6월말 실적평가에서 조기집행율 126%를 달성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 6억원을 받았으며, 시·군 부문에서 청송군이 우수기관으로 3억원의 인센티브를, 포항시, 영양·영덕·성주·봉화군 등 도내 5개 시·군이 조기집행 100% 목표달성단체로 각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국내·외 ICOMOS 위원 초청, 국제학술회의 개최

경상북도는 8월 1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회와 양동마을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고, 역사마을에 대한 장기보존관리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김찬 문화재청 차장, 이주석 행정부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이상해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국내·외 ICOMOS위원, 두 역사마을 보존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역사마을의 관리실태와 향후 보존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등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포항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청사준공

경상북도는 7월 27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해도 119안전센터 전경에서 공원식 정부부지사, 장두욱, 장경식, 채옥주 도의원, 안상찬 포항남구청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도119안전센터 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신축청사는 도에서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613.2㎡의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264.8㎡ 규모로, 소방차 3대와 공무원 16명이 근무하며, 원거리 근무자를 위한 비상대기용 숙소도 구비하였다.

경북새농민 한마음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7월 21일 상주실내체육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성윤환 국회의원, 송필각 도의회 부의장, 성효영 (사)전국새농민회장, 김유태 농업경북지역본부장, 경북새농민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의 경북농업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 경북새농민!'이라는 주제로 '2011년 경북새농민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공원식 정무부지사 명예경영학박사 수여



공원식 정무부지사는 기초의회 의장을 거쳐 경북도의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면서 '기업경영'과 '지방의회', '행정'이 조화를 이루는 CEO 출신다운 행정리더십을 발휘하여 도정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7월 19일 경일대학교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교육



경상북도는 8월 29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미래 경북농어업을 이끌어 나갈 농어업전문 CEO가 되기 위해 지역 대학 등 12개 교육기관에서 각 과정별로 분산, 위탁교육하고 있는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교육생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스마일(Smile) 교육을 개최, 전문농업경영사 1호 서도원씨에게 인정서를 수여하고,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에 헌신한 과정담당 교수 등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제5회 경북농아인의 날 기념식 개최

경상북도는 7월 7일 구미 GM컨벤션 웨딩홀에서 농아인과 그 가족 및 수화통역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화! 농인! 눈과 손으로 소통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제5회 경북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 김재한, 김현덕씨가 모범장애인으로, 박충근씨가 유공민간인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평소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장애극복 의지가 강한 이경찬 외 3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교양과목 '저출산의 이해', 도내 7개 대학에서 강의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의 이해를 위한 대학 교양교재 '행복한 삶과 가족'을 개발, 2011년 2학기부터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안동대, 동국대, 경북도립대 등 도내 7개 대학에서 2학점 정규 교양과목으로 사이버 강좌를 개설해 강의를 시작했다

〈제249회 임시회 결산〉



주민 민생관련 의원발의 조례안 및 안건 심사 2012년 본예산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안건, 민생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도정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천 의원 선출

한편,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한 2011년도 추경심사를 다루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의 위원장에 영주 출신 재선 의원인 김종천 의원을, 부위원장에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김종천 의원 부위원장 : 도기욱 의원
- 위원 : 강영석, 김세호, 김희원, 박진현, 변우정, 서정숙, 윤성규, 이영식, 전찬걸, 채욱주, 최우섭, 최학철, 홍진규 의원

■ 이상호 의장, '방폐장 유지 지원사업 조기지원' 건의



이상호 의장은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초청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 '경주지역 방폐장 유지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의장은 지역민심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수습 차원에서 방폐장 유지 조기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 줄 것과, 아울러 특별재원 조성 및 지원근거마련(예산우선확보), 장기 추진사업의 사업기간 단축 등을 건의하였으며, 더불어 '시·도의회에 대한 개인 임명보조원 제도 도입'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 이상호 의장, 베트남 타이응웬성 대표단 접견

경북도의회 이상호 의장은 8월 12일 경주에서 친선 교류 및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차 지난 8월 11일 내한한 베트남 타이응웬성 대표단(단장 부 홍 박타이응웬성 인민의회 의장)을 접견하고 경북도와 타이응웬성 간의 교류증진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농수산위원회, 집중호우 피해현황 파악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에서는 7월 12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7월 7일부터 10일까지 경북 남동부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현황과 복구 및 지원대책을 농수산 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조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 '일본 방위백서' 독도관련 억지주장 규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찬길)는 8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전체 명의로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1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또다시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에 대한 권리,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지난 7월 말에도 일본 자민당내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의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는 등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



■ 청사초롱, 세계유교문화축전 발전방안 모색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사초롱'은 8월 1일 지역축제의 문화관광 산업화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예천의 '삼강주막 막걸리축제'와 안동 하회마을의 수상무지컬 '부용지'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현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시설 벤치마킹 및 성인지 정책 토론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8월 24일부터 25일 까지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및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을 현지 방문,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지역의 성인지 정책 및 향후 여성정책개발 방향과 조례제정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종합노인복지시설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의 개관 취지와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는 등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기획경제위원회, 경북개발공사·대구경북연구원 첫 업무보고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8월 25일 경북개발공사,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지난 7월 14일 제정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감독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위원회, 도내 학생야영장 시설개선사업 현황 파악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청도, 상주, 안동지역의 학생야영장을 현지 방문하여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사업현장 확인·점검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현)는 8월 26일 안동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건립현장과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사업현장 등 도내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아울러 유교문화회관에 입주한 경북향교 재단 대표 등 8개 단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림자원개발원내 복합휴양관 건립현장,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현장을 둘러 보는 등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일행 방문

경기도의회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의원 28명이 8월 27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 양 도의회간에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호교환 방문 추진을 통해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용암~선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지확인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도내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 8월 30일 민병조 도청이전추진본부장으로부터 도청이전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날 오후에는 성주 용암~선남간 도로(국지도 67호선) 확·포장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8월 31일에는 구미시 해평면 소재 구미보 조성사업과 예천군 풍양면 소재 하천준설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경상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정책자료집 발간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월 30일 '경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지방의회의 발전과제 등과 관련하여 발표된 발제논문과 전문가 패널에 의한 토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 권의 정책자료집으로 묶어 발간했다.

이번 발간한 정책자료집에는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의 '지방의회 부활 2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초연설과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기능성에 대한 평가와 과제', 최병대 한양대 교수의 '경상북도의회 의위상강화 및 발전과제' 등 발제 논문을 실었다.



농수산위원회, 청도지역 농업현장 방문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청도지역 농업현장 확인을 실시, 9월 2일 청도농협 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농산물공판장 관계지를 격려하고 현장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9월 3일에는 청도 운문사, 와인터널, 청도 상설소싸움 경기 개막식 등에 참석하여 지역문화 관광문화 자원과 연계한 농산물 판로대책 등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효 의장,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과 간담회 개최



이상효 의장은 9월 5일 엑스코 인터볼고호텔에서 2011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 지역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해외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외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1년도 경상북도의회 의원 연수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주코오롱호텔에서 도의원 6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상호 토론을 통해 발전지향적인 의정활동의 방안을 모색코자 '2011년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를 실시, '신경북시대 경상북도의회 의 역할과 갈등 관리'를 주제로 한 동양대학교 황종규 부총장의 특강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임정열 지도과장으로부터 '2012 총선·대선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선거법 강의 등을 진행했다.



'초우회' 정기총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초선의원 모임인 '초우회'는 9월 7일 경주코오롱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38명 초선의원의 화합과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결속을 다질 것을 다짐했다.

'풀뿌리연구회', 타 시·도의회와 협력 강화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풀뿌리연구회(대표 박진현 의원)'는 지난 3월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상호공동연구 MOU를 체결한데 이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대전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각각 방문, 지방자치와 분권화에 기초한 의정활동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을 강화기로 했다.

농어촌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에 30억4천8백만원 투자

도내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

경상북도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30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치보철사업은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시술로 구분 지원된다. 전부의치 시술은 아래위턱 양측에 치아가 없으며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현재 치아의 기능이 불가능하거나, 아래위턱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부분의치 시술은 아래위턱 양측 어금니가 없는 어르신 중 잇몸상태가 양호하거나, 아래위턱 한쪽에 어금니가 없는 사람 중 잇몸상태가 양호한 어르신에게 지원한다.

시술에 따라 지원되는 1인당 최대금액은 전부의치는 150만원, 부분의치는 238만원을 지원하고, 시술지원을 받으려면 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면담을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의치보철사업과 함께 노인불소도포 사업, 스케일링사업, 의치보철사후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불소도포와 스케일링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을 대상으로 1인당 2만6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잇몸질환관리와 시린 이 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의치보철사후관리사업은 의치보철사업으로 무료 틀니를 기 시술 받은 노인에 한하여 사후관리 1년 이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 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053)950-2431

축산물원산지 표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음식점 축산물원산지 표시, 2012년부터 본격 지도 단속

경상북도에서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 이후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까지 확대 시행해 오면서 음식점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쇠고기 식육(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과 모든 식육가공품에도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함께 표시해야 하므로 2011년말까지는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물 뼈 육수(사골)를 이용한 설렁탕 가공업체와 음식점에도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자질이 없도록 단속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계산판에 해야 하고, 1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계산판, 포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표시가 가능하며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 표시를 할 수 있다.

품목별 표시 방법은 돼지고기,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주음식(메뉴기제)이 표시 대상이다.

집단급식소는 반찬에도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배추김치는 반찬 등으로 판매·제공하는 것(김치전골, 김치찌개 제외)이며,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 쇠고기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젓소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 쌀은 원형을 유지한 밥류가 표시대상으로(죽·식혜·떡 및 면은 제외) 콩 등 잡곡이 혼합된 경우 쌀의 원산지만 표시, 그 밖의 원산지 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쇠고기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및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의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된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100㎡ 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함으로써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소형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담당부서 : 식품유통과 053)950-2961

경북도,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멧돼지, 고라니, 까치 중점 포획, 수확기 농민 근심 크게 덜어

경상북도는 농작물의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의 출몰 또는 피해신고 즉시 출동하게 된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시·군별로 피해신고 시 즉시 출동 가능한 지역의 모범업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또는 기타 동물보호단체 1명 이상이 포함된다.

올해 중점 포획 대상은 그간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이며,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한다.

지난해 경북도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금액은 1,476백만원에 달하며 멧돼지, 고라니, 까치에 의한 피해가 93%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1,868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1,039마리, 고라니 1,617마리, 까치 1,996마리 등 총 4,989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수확기 농민들의 근심을 크게 덜어주었다.

또한 경상북도는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7억원)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2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053)950-3024



경북지역 일자리, 스마트폰으로 찾으세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스마트폰 통한 실시간 맞춤형 일자리정보 제공

경북지역의 일자리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8월 중순부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자리 포털형 앱(App) '경북일자리알림'을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경북일자리알림' 앱(App)은 '경상북도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지역 일자리정보를 구직자와 구인업체에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 직종별 ▲ 근무형태별 ▲ 지역별 일자리정보 ▲ 지리적 위치정보(GIS) ▲ 마이페이지 운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구직자가 회원으로 등록해서 희망 근무지역, 최종학력, 경력별, 희망연봉 등 원하는 채용조건을 설정하면, 자동매칭이 이루어져 맞춤형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자의 평소 관심대상인 업체가 채용정보를 경상북도일자리종합센터에 등록할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취업뉴스와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취업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지역별, 기관별 일자리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지역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www.gbjob.kr)'도 구축, 시·군 일자리센터, 대학 취업센터, 유관기관 일자리지원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스마트폰을 통한 일자리정보 제공과 함께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단 053)950-3947



올해 11월부터 쌀 등급표시 의무화

쌀 등급은 1~5등급, 단백질 함량은 수·우·미로 표시

경상북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쌀도 최고기처럼 포장재에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쌀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

'쌀 등급표시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우리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4월 6일자로 개정하고, 7월 28일자로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기준을 고시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참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위 및 품질'은 수분과 찌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존 '특·상·보통' 3등급으로 나뉘던 것을 '1·2·3·4·5'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에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며,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뉘지만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에 경과조치로 쌀 등급 표시의 경우 2012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양곡표시제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당초(권고사항)	개정(의무사항)
품위규격	품위는 특, 상 또는 보통으로 표시	해당하는 등급(1~5등급)에 ○표시 검사하지 않은 것은 '미검사' 표시
품질기준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순도를 표시	단백질 함량(수/우/미)에 ○표시 검사하지 않은 것은 '미검사' 표시
기타	-	가공용쌀은 등급이나 단백질 함량표시 대신 '가공용' 표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양곡의 표시사항 등)

▶ 담당부서 : 식품유통과 053)950-2625

딱 이맘때! 환절기질환 조심하세요!

가을은 높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날씨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자칫 방심하
다가는 환절기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바이러스성 장염

고온으로 인해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에는 세균성장염이 발생하지만 기온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바뀌게 된다. 세균성장염의 경우 배가 싸르르하게 자주 아프고 혈변을 보지만 바이러스성 장염은 대개 물이 많이 섞인 설사가 나온다. 심하면 하루 10회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나 배는 많이 아프지 않다. 하지만 수분소실에 의한 탈수가 올 수 있다. 바이러스성 장염은 주로 대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와 전염되는 것이므로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좋다.

피부 건조증

피부가 땅기고 입가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다면 '가을피부 건조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가을피부 건조증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땀 분비가 줄어들고 건조한 기후에 몸이 노출되면서 피부표면의 각질층에 함유된 수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피부 건조증에 의한 가려움증을 예방하려면 너무 뜨거운 목욕이나 잦은 목욕을 피해야 한다.

기관지 천식

천식은 가을철 특히 9~10월 사이에 악화된다. 급작스런 기온변화와 이에 따른 호흡기바이러스감염이 원인이다. 호흡기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정상인도 약 3~6주 정도 기관지과민증상이 나타난다. 가을철에 유행하는 호흡기바이러스는 라이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표적이다. 라이노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코감기를 일으킨다. 대개 2~3일의 잠복기 후에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는 증상이 오며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수도 있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천식환자에게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을 일으킨다. 감염된 지 2~3일이 되면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며 고열이 난다. 천식을 예방하려면 먼지진드기, 곰팡이 등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100세의 꿈 실현! 한방특구 영천에서!!'



제9회 영천한약장수축제, 골별문화예술제 9월 30일 팡파르

제9회 영천한약장수축제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영천역광장과 완산동 한방명소거리, 도동 한약유통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건강 100세의 꿈 실현! 한방특구 영천에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한약을 소재로 한 건강·웰빙·장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영천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30%가 유통되고 있고 거래 약종이 480여종으로 '영천에 오면 구하지 못하는 한약재가 없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품목이 다양하다. 한약재 거래업소가 도매상을 포함해 150여개소가 성업 중이고 일본과 홍콩, 미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건강·웰빙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주제관인 '건강 100세관'을 운영한다. 또 가장 인기 있는 체험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중국 개봉시 중의원을 초청한 한방무로진료관도 확대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명의 초청 한의학 세미나와 대한한의사회의 학술세미나도 개최한다.

자신의 체질 및 취향에 맞는 약재를 골라 방향제/약첩 등 만들기, 건강을 기원하는 풍등 날리기, 한방차, 한방관련 음식(산삼배양근비빔밥, 한방김치, 한방국수 등) 무료 시음과 구입, 사찰음식 전시·시연도 가진다.

약거리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한약재를 거리에 전시하고, 약재상별로 주 약재를 엄선해 특가로 판매도 한다. 한방관련 가공제품의 전시와 더불어 산삼, 상황버섯, 겨우살이, 만병초 등 희귀약재도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약재를 이용한 영천시천연염색공예브랜드인 '자우비'

작품 전시 및 판매, 패션쇼도 기대되는 볼거리 중의 하나다. 한약장수축제와 같은 기간 동시에 개최되는 골별문화예술제에서도 왕평가요제를 비롯한 K-POP 댄스공연, 클래식 음악공연, 서예 퍼포먼스, 사진·미술·공예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특히 축제 둘째 날인 10월 1일 오후에는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육군 제3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대규모 시가지 퍼레이드를 펼쳐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 축제행사 문의 054-339-7281, <http://herb.yc.go.kr>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Season II 문경사과 맛의 비밀’ 2011 문경사과축제 개최!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Season II 문경사과 맛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10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3일간 ‘2011 문경사과축제’가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문경사과축제는 문경새재의 아름다운 가을 경치와 어우러져 사과공원, 사과포토존, 사과홍보관 등 특색 있는 볼거리와 사과낚시, 사과따기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고품질의 명품사과 생산을 위한 국제사과학술세미나 및 사과품평회 등 다양한 사과 관련 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축제기간 동안 문경사과특별판매행사가 열려 문경사과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문경사과의 맛에 흠뻑 젖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1. 10. 8(토)~10. 30(일)
- 장 소 :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 행사내용
 - 문경사과 홍보관 (사과역사, 사과가공품 전시 등, 2011. 10. 8~10. 30)
 - 국제 사과학술세미나(2011. 10. 15)
 - 문경사과 특판행사(2011. 10. 8~10. 30)
 - 사과낚시 등 체험행사(2011. 10. 8~10. 30)
 - 문경사과 학생 조형물 공모전 및 전시(2011. 10. 8~10.30)

문의 : 친환경농업과 054-550-6887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 ‘경상북도 제1호 슬로시티’ 지정되다!



슬로시티가 지난 6월 25일 폴란드에서 개최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서 슬로시티(cittaslow)로 공식 선포되었다. 지난 해 10월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실사를 거쳐 청송군과 함께 ‘경상북도 제1호 슬로시티’로 지정된 것이다.

슬로시티는 1999년 ‘끼안티’라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느린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10년이 조금 지난 현재 24개국 147개 도시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도 전남(신안·완도·장흥·담양), 경남(하동), 충남(예산), 전북(전주), 경기(남양주)에 총 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상주시와 청송군이 최초로 지정되어 총 10개 지역이 되었다.

슬로시티 운동의 지향점은 ①철저한 자연생태보호 ②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③천천히 만들어진 슬로푸드 농법 ④지역 특산물/공예품 지킴이 ⑤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지방의 세계화, 즉 세방화(Glocalization)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상주시는 이러한 슬로시티 정신에 부합하는 백두대간과 낙동강 생태축을 끼고 있는 청정생태도시이자 경상도의 대표 역사·

문화도시이며, 삼백(三白)으로 대표되는 농업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인 자전거 도시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대표 슬로푸드인 꽃감과 전통을 이어온 함창명주가 있으며, 너른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들이 풍요로움을 더하는 슬로시티의 평온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번 슬로시티 지정은 성백영 상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상주시장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꿈이 있는 마을’,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슬로시티 지정을 통해 상주함창명주 등 전통산업과 지역 슬로푸드를 육성하고 전통문화와 정인을 보호·육성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 기초 인프라 구축, 도시미관, 토산품, 방문객 수용 등의 주요 시장추진분야에 있어서도 슬로시티 철학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슬로시티’는 국제적인 인증 도시로, 대표 상징로고는 청정지역에서만 산다는 달팽이이다. 이번 슬로시티 지정으로 경상북도와 상주시의 청정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슬로시티 자체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검색창에 **새주소** 를 쳐보세요!